

교회 지도자의 승계를 이끈 중요한 순간들



시드니 리그돈 1844년 8월 3일 시드니 리그돈이 나부에 도착했다. 그는 조셉 스미스의 사망 관련 소식을 들었을 당시 조셉 스미스의 대선 운동 준비를 하며 펜실베이니아주에 살고 있었다. 그는 나부에 도착한 다음 날 조셉 스미스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호자”로서 교회를 인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1844년 8월 5일 약 5개월 전에 개종한 회원인 제임스 제이 스트랭이 미시건주 플로렌스에서 열린 성도들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다. 제임스는 그 모임에서 조셉 스미스가 자신을 선지자의 후계자로 인정했다고 쓴

가짜 편지 한 통을 제시했다.

1844년 8월 6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리검 영, 히버 시 킴볼, 라이먼 화이트, 올슨 프렛, 월포드 우드럽 장로가 미국 동부의 선교 임지에서 나부로 돌아왔다.

1844년 8월 7일 교회 지도자들이 나부에서 모임을 했다. 제일회장단에서 조셉의 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이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다. 시드니는 자신이 한 시현을 보았으며 “누구도 조셉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자청했다.(in “History of Joseph Smith,” *Millennial Star*, Apr. 4, 1863, 215)

십이사도를 감리했던 브리검 영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했다.



“저는 누가 교회를 인도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 . .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점만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조셉은 사망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사도 직분에 속한 모든 열쇠와 권능을 우리 머리 위에 부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의 집단도 이 세상이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 조셉과 십이사도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Brigham Young, in *Manuscript History of the Church*, vol. F-1, p. 296, josephsmithpapers.org)

- 여러분이 그 당시 교회 회원이었다면 이러한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은가?
- 조셉 스미스가 왕국의 열쇠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성도들이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가?